

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24

或曰眞心 平生不生耶
혹왈眞심 평생불생야
曰眞心 有時施用 非逐境生
왈眞심 유시시용 비축경생
但妙用遊戲 不昧因果耳
단묘용유희 불매인과이

다니는 고혼(孤魂)처럼 여기므로 특별히 이런 질문을 하여 의탁할 데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或曰然
혹왈연

"그렇습니다." 하고 말했다.

曰達性則不然也 一切衆生 迷覺性故
왈달성즉불연야 일체중생 미각성고
妄情愛念 結業爲因 生六趣中
망정애념 결업위인 생육취중
受善惡報 假如天業爲因 只
수선악보 가여천업위인 지
得天果 除生處 餘並不得受用
득천과 제합생처 여병부득수용
諸趣皆爾 既從其業故 生處爲樂
주취皆얼 既從其業故 生處爲樂
諸趣皆爾 既從其業故 生處爲樂
諸趣皆爾 既從其業故 生處爲樂

대답했다. "자성(自性)에 통달하면 그렇지 않다. 모든 중생은 자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망령된 생각과 애욕으로 업을 짓는 것이 인이 되어

물었다. "진심은 평상하니,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대답했다. "진심은 때때로 베풀고 작용하지만 경계를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묘한 작용으로 유희하므로 인과에 매이지 않을 뿐이다."

15. 진심의 소재(眞心所往)
或曰未達眞心人 由迷眞心故
혹왈미달眞심인 유미眞심고
作善惡因 由作善惡因故 生善道中
작선악인 유작선인고 생선도중
由作惡因故 入惡道中 逐業受生
유작악인고 입악도중 축업수생
其理不疑 若達眞心人 妄情歇盡
기리불의 약달眞심인 망정할진
契證眞心 無善惡因 一靈身後
계증眞심 무선악인 일영신후
何所依託耶 何所依託耶
하소의탁야 하소의탁야

중생은 망령된 생각과 애욕으로 六趣에 태어나 선악의 과보 받아

물었다. "진심을 통달하지 못한 사람은 진심을 모르기 때문에 선악의 인연을 짓습니다. 선인(善因)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악인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쁜 세상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업(業)을 따라 생을 받게 된다는 그 이치는 의심이 없습니까 다만 만약 진심을 통달한 사람이라면 망령된 생각이 다 없어져 진심에 계합되고 중독되었으므로 선악의 인(因)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뒤에 영혼은 어느 곳에 의탁합니까?"

여섯 갈래의 세계(六趣)에 태어나서 선악의 과보를 받고 있다. 가령 천업(天業)으로 인을 삼으면 반드시 천과(天果)를 받을뿐 제가 태어날 함당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용할 수가 없다. 다른 세계도 다 그러하여 이미 그 업을 따르기 때문에 태어날 곳으로 낙을 삼고 태어나지 않을 곳은 나이가 아니라고 여기며, 태어나기에 함당한 곳을 자기의 의탁처로 삼고 태어날 수 없는 곳은 타인의 의탁처로 삼는다.

所以有妄情則有妄因 有妄因則有妄果
소이유망정즉유망인 유망인즉유망과
有妄果則有依託 有依託則分彼此
유망과즉유의탁 유의탁즉분피차
분피차즉유가불가야

그 이유는, 망령된 생각이 있으면 망령된 인연이 있게 되고 망령된 인연이 있으면 망령된 결과가 있으며, 망령된 결과가 있으면 의탁하는 데가 있게 되며, 의탁하는 데가 있으면 자궁, 이곳을 나누게 되고, 자궁 이곳을 나누면 옳다. 그러다 함이 있기 때문이다.
김원익(시인·역경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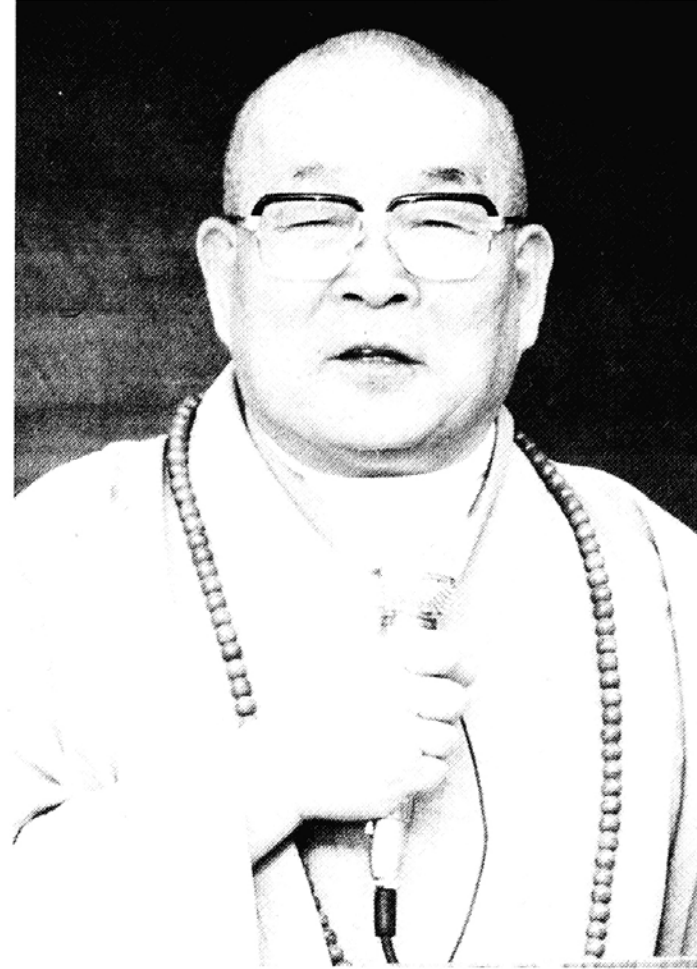
대답했다. "의탁할 데가 있는 것이 의탁할 데가 없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 아니라, 또 의탁할 데가 없는 것을 사람과 사이에 떠돌아 다니는 방랑한 자와 같이 보거나 귀신 세계에 떠돌아

Table with 2 columns: Location (부산지사, 광주지사, 대구지사, 목포지국, 양양지국, 청주지사, 강릉지사, 대전지사, 안산지사, 전주지사, 고성지국, 제주지사) and Phone Number.

불교성서 THE LIFE AND HIS TEACHING OF BUDDHA GOTAMA SAKYA. 제 1 편: 부처의 생애, 제 2 편: 부처의 가르침. 관음역사,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크스님 수행한담 "탐진치 삼독 여의는

원명스님 (대구사원주지연합회장)



속가집은 김천역 부근에 있었는데 부모님이 목심한 불교신자라보니 스님들이 종종 들었습니다. 당시 청암사 수도암 정각토굴에 주석하셨던 은사 구산(九山·前송광사 방장)스님도 가끔 오셔서 공양도 하시고 부모님과 법담도 나누곤 하셨습니다.
스님은 5척 단구인에도 여짜내 의젓하고 당당하신지 어린 제논에는 아주 큰 도인으로 보였습니다. 오실때마다 저에게 말을 건네기도 하고 쳐다보며 빙그레 미소짓기도 하셨는데 아마 사제의 연(緣)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저는 남산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어머니의 권유로 수도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남2녀중 막내아들인 저를 주지없이 출가시킨 것을 보면 어머니의 불심이 깊은 탓도 있었지만 구산스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도암에는 참선하는 스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어린 동자승이 들어오자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감자나 고구마같은 간식거리가 생기면 저를 빠뜨리는 법이 없었지요. 그런 가운데서 예경과 참선하는법을 알뜰하게 배울수 있었고 이듬해 송광사로 가서 사미계를 받음으로써 구산스님의 첫 제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송광사의 가람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수많은 법당과 전각이 빼곡이 들어차있어 비를 갖지 않고도 해우소에 갈수있을 정도였으니까요.
16분의 국사를 배출한 대가람은 어린 사미의 마음에 신심의 불을 당기기에 충분했었지요.
그러나 여순반란사건이 일어나 사찰이 전소되고 스님들이 잡혀가 고문까지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송광사는 공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도량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침 송광사 조실이자 구산스님의 은사이신 효봉크스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긴 가야산총림의 초대방장으로 추대되어 제자들과 함께 해인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도 인연이 아닌지 6.25전쟁이 터져 해인사에서도 머물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부산 동래 금정선원으로 피난을 갔지만 결국 그곳에서도 살지못하고 통영의 용화사 도솔암에 정착하게 됩니다. 저는 그곳에서 약10여년간 효봉크스님을 직접 시봉하게 되는 복연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효봉크스님은 거기서 총무 미려사를 창건해 주석하시면서 조계종 정화불사에 간여하시다가 조계종 총무원장과 종정에 추대되었습니다. 이후 팔공산 동화사에 내려오시게 되었는데

- 30년 경북 김천 생
43년 경북 금릉군 수도암에서 구산스님을 은사로 득도
44년 송광사에서 구산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수지
50년 해인사에서 상월을사 계사로 비구·보살계 수지
62~68년 대구 보현사, 진주 연화사주지등 역임
78년 조계종 제5·6대 중앙종회의원
79년 제27대 송광사주지
81년 대구사원주지연합회 초대회장
88년 불교대구교육원 이사장
89년 불교대구교육원 원장
95년~현재 대구사원주지 연합회 회장
97년~현재 (사)마하아나 불교문화원 이사장
대구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이사장
68년~현재 대구 관음사 주석

게으름은 심신 병들게 합니다 말은일 땀흘려 노력하면 하심공부 저절로 되는 것

請看東流水(청간동류수) 滾滾無停時
(곤곤무정시)
參禪若如是(참선약어시) 見性何得遲
(견성하득지)
동로 흘러가는 저물을 보라 도도히 흘러 멈추지 않네
만일 참선을 이같이 하면 견성이 어찌 더딜까
은사이신 구산스님은 수도암토굴에서 정진할때도 직접 밭을 일궈 양식을 조달할 정도로 선농일치(禪農一致)의 행을

나는 효사상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덕목이지요. 효사상과 관련된 서적들은 얘기를 한토록 들려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한 보살이 우유배달을 나갔다가 놀이터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할머니 한분을 발견하고는 인사를 했으나 묵묵부답이었던답니다.
여러 가지를 물어도 대답이 없이 멍하니 앉아있지만 하자 일단 짐으로 모시고 가서 음식을 대접한후 연락처를 발견할 요량으로 호주머니를 살피니 쪽지하나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이쪽지에 적힌 번호로 연락하시되 여자음성이 들리면 끊고 남자음성이 들리면 통화하십시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음성이 들려서 전화를 끊었으나 한참 후에 다시 전화를 하니 남자음성이 들려왔답니다. 그 남자는 할머니의 아들였었는데 잠시후 외제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레이키 전수 교육내용이 더욱 충실해졌습니다. 레이키 전수 교육내용이 더욱 충실해졌습니다. 레이키 전수 교육내용이 더욱 충실해졌습니다. 레이키 전수 교육내용이 더욱 충실해졌습니다.